

초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폭력 및 비폭력에 대한 지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와 가해행동 간의 관계

이 승 연* 최 은 지 황 보 람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지각된 부/모의 폭력 및 비폭력에 대한 지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17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폭력에 대한 지지는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가해행동은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부/모의 비폭력에 대한 지지는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가해행동은 예측하지 못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는 부/모의 폭력에 대한 지지와 가해행동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고, 비폭력에 대한 지지와 가해행동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 발견의 시사점과 초등학생 또래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부모의 폭력 및 비폭력에 대한 지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

† 교신저자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03760)
E-mail: slee1@ewha.ac.kr

또래괴롭힘(bullying)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교육부는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기점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경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2년 8.5%에서 2016년 0.8%로 크게 감소하였다(교육부, 2016). 그러나 교육부의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생의 피해율(1.3%)은 중학생(0.5%)의 2.6배, 고등학생(0.4%)의 3.25배였으며, 전체 피해 학생 중 초등학교생의 비율은 48.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생의 가해율(0.6%)은 중학교(0.2%)의 3배, 고등학교(0.1%)의 6배로 나타나, 가해행동이 다른 학교 급에 비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생들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의 구체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종단연구에서 전년도에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다음 해에도 학교폭력 가해자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혜리, 조영일, 2015),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년 종단연구를 실시하였을 때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 중 약 78%는 다음 해에 학교폭력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일, 2013). 즉, 초등학교생의 가해행동은 단기적이고 그만큼 예방이나 개입에 의해 변화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들의 가해행동과 관련된 구체적 기제를 검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또래괴롭힘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경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래괴롭힘은 피해자가 겪게 되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긴 하지만, 가해행동도 마찬가지로 발달과정 상에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5학년 때의 가해행동은 21세 때의 폭력, 폭음, 마리화나 사용과 연합되어 있었으며(Kim, Catalano, Haggerty, & Abbott, 2011), 8세 때의 가해행동은 청소년의 우울, 25세 때의 자살사고와 자살사망을 예측하였다(Klomek, Marrocco, Kleinman, Schonfeld, & Gould, 2008; Klomek et al., 2009). 그러나 아동기 가해행동과 장기적인 발달적 결과 간의 관계는 다른 개인적 위험요인이나 가족과 같은 환경적 변인들이 함께 고려될 경우 약화되었다(Kim et al., 2011). 즉, 아동이 지닌 개인적, 환경적 위험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가해행동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가해행동으로 인한 부적 결과를 줄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Farrington & Trofti, 2011).

또래괴롭힘 가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공격성을 도구로 사용한다(Rodkin, Espelage, & Hannish, 2015). 공격성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하다는 믿음은 하나의 지식구조로서 사회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즉, 적대적인 사회적 단서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공격적 목표와 공격적 반응을 더 많이 선택하게 한다(Dodge, 1993; Crick & Dodge, 1994; Ziv, Leibovich, & Shechtman, 2013). 이와 관련하여, 공격적 행동에 대한 수용 또는 불허에 대한 개인의 인지(cognition), 즉,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은 행동을 조절하는 인지적 도식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안정화되기 시작한

다. 또한 4, 5학년부터는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 공격적 행동을 예측하는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Huesmann & Guerra, 1997). 즉, 동성의 또래를 향한 보복적 공격성(예, “누군가 나를 먼저 때리면 상대방을 때려도 괜찮다.”)을 괜찮다고 보는 초등학교 4, 5학년 남학생은 신체적, 언어적, 간접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Lim & Ang, 2009), 공격성을 적절한 사회적 행동으로 믿는 4, 5학년생은 6학년 때 더 많이 공격적으로 행동하였다(Huesmann & Guerra, 1997).

그러나 공격성에 대한 신념은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설명하기에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Salmivalli & Voten, 2004), 보다 구체적으로 또래괴롭힘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Boulton, Bucci와 Hawker(1999)의 중학생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것(anti-bullying attitudes)은 실제 가해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Salmivalli와 Voten(2004)의 연구에서도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가 강한 것이 초등학교 5, 6학년의 가해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또래괴롭힘이 괜찮다고 믿는 것 역시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가 아닌,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 폭력에 대한 태도, 도덕적 이탈 등이 폭력이나 공격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예, Burton, Florell, & Wygant, 2013; Thornberg & Jungert, 2014; Vernberg, Jacobs, & Hershberger, 1999). 또래괴롭힘은 힘의 불균형, 지속성, 의도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격성의 하위유형이지만(Olweus, 1993), 최근 또래괴롭힘과 공격성의 예측요인에 서로 차이

가 없음이 보고되면서 이 둘 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있다(Cook, Williams, Guerra, Kim, & Sadek, 2010; Rodkin et al., 2015). 따라서 공격성에 대한 신념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뒷받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예, Boulton et al., 1999; Pouwels, Lansu, & Cillessen, 2017; Wang, Swearer, Lembeck, Collins, & Berry,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성에 대한 허용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통해, 그리고 부모나 또래 등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공격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발달하게 된다(Huesmann & Guerra, 1997). 부모가 공격적 또는 비폭력적 행동에 대해 평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는 아동의 행동을 조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는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 반응을 지지하는 부모의 메시지를 내재화하고, 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하게 된다(Bandura, 1986; Zimmer-Gembeck & Collins, 2003). 사회인지 정보처리 모델에 따르면 부모의 폭력, 비폭력 지지에 대한 지각은 자녀의 신념과 규준을 조형하고, 이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 도식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이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Garthe, Sullivan, & Larsen, 2015). 실제로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는 싸움이 필요하다고 믿고 자녀가 이에 동의할 경우, 이전 6개월 동안 학교에서 정학되었을

가능성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7.5배나 높았다(Solomon, Bradshaw, Wright, & Cheng, 2008). 또한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를 지각하는 것은 아동의 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였다(임정임, 김예성, 2010).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에 부모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아마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싸움에 대한 부모의 실제 태도는 자녀의 태도를 통제했을 때조차 직접적으로 자녀의 공격적 행동을 예측하였다(Solomon et al., 2008). 그러나 자녀의 행동은 부모의 실제 태도가 아니라, 자녀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의해 더 잘 예측되며(예, Sieving, McNeely, & Blum, 2000; Copeland-Linder et al., 2007), 실제로 모욕을 당할 경우 부모님이 내가 폭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거나 원할 것이라고 믿는 7학년 학생들에게서 싸움은 더 흔하게 나타났고(Malek, Chang, & Davis, 1998), 부모가 싸움을 지지한다고 지각하는 것은 부모의 모니터링, 부모와의 갈등적 관계, 가족 구조보다도 6-8학년의 공격성을 강력하게 설명하였다(Orpinas, Murray, & Kelder, 1999).

그러나 비폭력적 반응을 지지하는 부모의 메시지가 아동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찍이 Padilla-Walker와 Carlo(2007)가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를 지각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개인적 가치에 영향을 미쳐서 친사회적 행동을 늘리게 된다고 보고한 것 외에는 부모의 비폭력 지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는 부모의 폭력에 대한 지지를 다룬 많은 연구들(예, Copeland-Linder et al., 2007; Orpinas et al., 1999)이 폭력에 대한

지지와 비폭력에 대한 지지를 하나의 차원으로 통합하여 사용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폭력 또는 비폭력 지지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단일차원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차원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Murray, Haynie, Howard, Cheng, Simons-Morton(2010)의 6학년 연구에서 공격적 해결책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낮게 지각하는 것은 3개월 후 외현적 공격성을 낮추었지만, 부모의 평화적 해결책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외현적 공격성의 감소를 예측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폭력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이 부모의 비폭력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Garthe 등(2015)의 종단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의 폭력 지지는 6, 7학년 모두에서 공격적 행동은 정적으로, 비폭력적 행동은 부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7학년에서만, 1학기에 측정된 부모의 비폭력 지지가 2학기의 공격적 행동을 줄일 뿐 비폭력적 행동은 예측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arrell, Henry, Mays와 Schoeny(2011)는 부모의 비폭력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지각하는 것은 부모의 폭력 지지와 중학생의 신체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약화시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폭력 지지와 비폭력 지지가 두 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한편,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로 함께 보았거나 주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폭력/비폭력에 대한 지지나 태도를 측정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부모의 태도나 기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려운데,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또래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더 동정적 태도를 나타냈다는 Esla와 Smith(2000)의 연구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의 공격성을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Thurber와 Osborn(1993)의 연구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유대와 조화를 중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학습해온 여성과 지배적이고 경쟁적이며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도록 사회화되어 온 남성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 있다(최경숙, 송하나, 2010). 또한 어머니는 여전히 자녀양육에 있어 더 주도적 역할을 하며, 자녀와의 의사소통 역시 더 빈번하다(Blakemore, Berenbaum, & Liben,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폭력/비폭력에 대한 지각된 태도를 측정하고, 지각된 부모의 태도,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 그리고 가해행동 간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폭력 또는 비폭력에 대한 지각된 지지가 또래 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와 가해행동을 어떠한 경로로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변인들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 소재 3개 초등학교의 5·6학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6년 12월, 해당학교

의 사전 허가를 받고, 자발적 참여자에 한해 학급별로 실시되었다. 수거된 49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각 변인의 표준점수가 ± 4 이상으로 매우 높은 이상치를 보인 15명의 자료는 제외하고, 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응답한 58명의 자료 역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417명(남: 201명 여: 21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연령은 11.53세($SD=.52$), 지각된 경제적 수준은 94.9%가 '중간'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의 폭력(비폭력)에 대한 지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폭력(비폭력)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Orpinas 등(1999)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Parental Support for Fighting Scale을 이중 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타당하게 사용되어 왔다(Farrell et al., 2011; Garthe et al., 2015; Krammer-Kuhn & Farrell, 2016). 번역은 심리학과 석사과정생 2인을 포함한 이중언어자 3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역번역 과정에서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본 연구팀과 이중언어자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폭력에 대한 지지'(5문항)는 '우리 엄마(아빠)는 만약 누군가 나를 때리면, 똑같이 그들을 때려도 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싸움을 걸면, 먼저 그들을 때리라고 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며, '비폭력에 대한 지지'(5문항)는 '우리 엄마(아빠)는 누군가 싸움을 걸면 대화로 싸움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선생님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고 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Orpinas 등(1999)은 '비폭력에 대한 지지' 5문항에 대한 반응을 역코딩하여 '폭력에 대한 지지'라는 단일차원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지지'와 '비폭력에 대한 지지'가 서로 독립적임을 밝힌 선행연구(Garthe et al., 2015; Kramer-Kuhn & Farrell, 2016; Murray et al., 2010)를 토대로, 각각을 2개 요인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폭력/비폭력 지지 정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그렇다/아니다' 방식에서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수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또는 비폭력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척도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과 공통성(community)이 낮은 문항이 발견되어 각 요인마다 1문항씩 제거 후(우리 엄마(아빠)는 만약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싸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누군가 나를 놀리면 무시하라고 할 것이다'), 각 4문항씩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모의 폭력 지지는 각각 .86, .80, 비폭력 지지는 .77, .56이었다. 모의 비폭력 지지의 내적합치도가 다소 낮긴 하지만 .5 이상일 경우 도구의 신뢰성이 인정되므로(Kline, 2000) 그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

Salmivalli와 Voeten(2004)의 척도를 이중 역번역하여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anti-bullying) 아동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번역 과정은 앞에 기술한 방식과 동일하다. 총 10문항의 단일차

원이며, 본래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되었으나 보다 분명한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간값(3점: 보통이다) 없이,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가끔 재미있을 때도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며, 또래괴롭힘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에 반대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75$ 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Salmivalli, La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Kaukiainen(1996)의 참여자 역할 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자기보고식으로 재구성한 서미정(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중 가해행동을 측정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고, 지난 6개월간의 가해행동 빈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나는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아이의 별명을 부르거나 다른 아이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여럿이 놀 때 고의로 한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등 신체적·언어적·관계적인 가해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없다 ~ 5점: 11회 이상)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행동이 빈번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75$ 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

아동의 성별, 학년,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료분석

먼저, SPSS 2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와 가해행동 척도는 모두 하위요인 없이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들이고, 부/모의 폭력(비폭력)에 대한 지지 척도는 본 연구에서 2개의 잠재변인으로 각각 사용하였기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을 문항 묶음화(item parceling)하였다. 이어서 부/모의 폭력 및 비폭력에 대한 지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Mplu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각 잠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가능한 점수 범위 및 실제 점수범위를 산출하였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상관 분석 결과, 모의 비폭력에 대한 지지와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부의 폭력에 대한 지지는 모의 폭력 지지와 정적 상관($r=.60, p<.001$), 부의 비폭력 지지, 모의 비폭력 지지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44, -.28, ps<.001$). 또한 부의 폭력 지지는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와는 부적 상관($r=-.32, p<.001$), 가해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31, p<.001$).

한편, 모의 폭력에 대한 지지는 부와 모의 비폭력 지지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각각 $r=-.23, -.35, ps<.001$),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와 부적 상관($r=-.30, p<.001$), 가해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19, p<.05$). 부의 비폭력에 대한 지지는 모의 비폭력 지지와 정적

결 과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417)

	1	2	3	4	5	6
1. 부의 폭력에 대한 지지	-					
2. 모의 폭력에 대한 지지	.60***	-				
3. 부의 비폭력에 대한 지지	-.44***	-.23***	-			
4. 모의 비폭력에 대한 지지	-.28***	-.35***	.60***	-		
5.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	-.32***	-.30***	.29***	.39***	-	
6. 가해행동	.31***	.19***	-.14**	-.09	-.36***	-
M(SD)	6.50(2.79)	6.09(2.36)	12.90(2.46)	13.03(1.98)	34.14(4.03)	11.30(3.94)
가능한 점수 범위	4-16점	4-16점	4-16점	4-16점	10-40점	7-35점
실제 점수 범위	4-16점	4-14점	4-16점	7-16점	21-40점	7-28점

* $p<.05$, ** $p<.01$, *** $p<.001$

상관을 보였고($r=.60, p<.001$),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와는 정적 상관($r=.29, p<.001$), 가해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14, p<.01$). 반면 모의 비폭력에 대한 지지는 또래 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39, p<.001$),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와 가해행동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36, p<.001$).

부/모의 폭력에 대한 태도,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 가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측정모형의 검증

먼저,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0.96 \sim 1.50$, 첨도는 $-0.70 \sim 2.01$ 로 Kline(2011)의 왜도 ≤ 3 , 첨도 ≤ 10 의 단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본래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으로 하지만, 각 변인의 단변량 정규성이 충족된다면 다변량 정상성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Kline, 2011).

다음으로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측정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chi^2(21)=31.238(p>.05)$, CFI=.992, TLI=.986, SRMR=.023, RMSEA=.034 [90% CI:.000-.058]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측정모형은 $\chi^2(21)=35.608 (p<.05)$ 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나 다른 근사적합도 지수에서 측정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FI=.985, TLI=.974, SRMR=.027, RMSEA=.041 [90% CI:.015-.063]).

한편, 부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측

정모형에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7 \sim .91$, 상관계수는 $-.48 \sim .37$ 로 나타나 Kline(2011)의 수렴타당도 조건인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7$ 이상, 변별타당도 조건인 변인 간 상관계수 $.9$ 이하의 조건을 모두 확보하였다. 또한 모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측정모형에서 요인부하량은 $.58 \sim .87$ 로 요인부하량이 $.5$ 이상이면 충분히 높은 상관이 있다는 Nunnally와 Bernstein(1994)의 기준을 충족하여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관계수는 $-.39 \sim .43$ 로 나타나 변별타당도 역시 확보하였다.

구조모형의 분석

연구모형 분석 시 부와 모의 폭력에 대한 태도 변인 간 상관이 다소 높아($r=.60, p<.001$) 부와 모 각각의 고유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를 분리하여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각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동일하였고,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부의 폭력에 대한 태도,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 및 가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표 2와 같다(연구모형1). 부의 폭력에 대한 지지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 간 경로는 부적적으로($\beta=-.20, p<.01$), 부의 비폭력 지지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 간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0, p<.01$). 즉, 부가 폭력을 지지한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가 약해지고, 부가 비폭력을 지지한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괴롭힘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와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간 경로는 부적적으로 유의하였는데(β

표 2. 연구모형1의 경로계수(부의 폭력에 대한 태도) (N=417)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부의 폭력 지지 → 또래괴롭힘 반대 태도	-.13	.05	-.20**
부의 비폭력 지지 → 또래괴롭힘 반대 태도	.15	.06	.20**
또래괴롭힘 반대 태도 → 가해행동	-.44	.12	-.25***
부의 폭력 지지 → 가해행동	.36	.08	.32***
부의 비폭력 지지 → 가해행동	.05	.10	.03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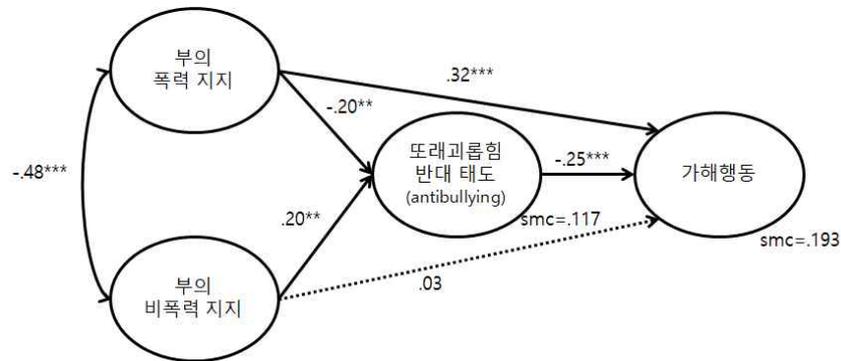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1의 매개효과(부의 폭력에 대한 태도)

** $p < .01$,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 -.25, p < .001$), 즉,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를 지닐수록 가해행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의 폭력 지지와 가해행동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한 반면($\gamma = .32, p < .001$), 부의 비폭력 지지와 가해행동 간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가 폭력을 지지한다고 지각할수록 가해행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졌지만 부의 비폭력 지지는 실제 가해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모의 폭력에 대한 태도,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 및 가해행동 간 구조적 관계는 표 3과 같으며(연구모형2), 연

구모형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먼저, 모의 폭력 지지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 간 경로는 부적으로($\gamma = -.20, p < .01$), 모의 비폭력 지지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 간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gamma = .35, p < .001$), 이 두 경로 간에 큰 차이가 없었던 연구모형1과 달리,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에 대한 모의 비폭력 지지의 영향력이 폭력 지지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z = 7.73, p < .001$).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와 가해행동 간 경로는 연구모형1과 동일하게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표 3. 연구모형2의 경로계수(모의 폭력에 대한 태도) (N=417)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모의 폭력지지 → 또래괴롭힘 반대 태도	-.16	.06	-.20**
모의 비폭력지지 → 또래괴롭힘 반대 태도	.38	.09	.35***
또래괴롭힘 반대 태도 → 가해행동	-.45	.14	-.28***
모의 폭력지지 → 가해행동	.31	.09	.24***
모의 비폭력지지 → 가해행동	.16	.15	.10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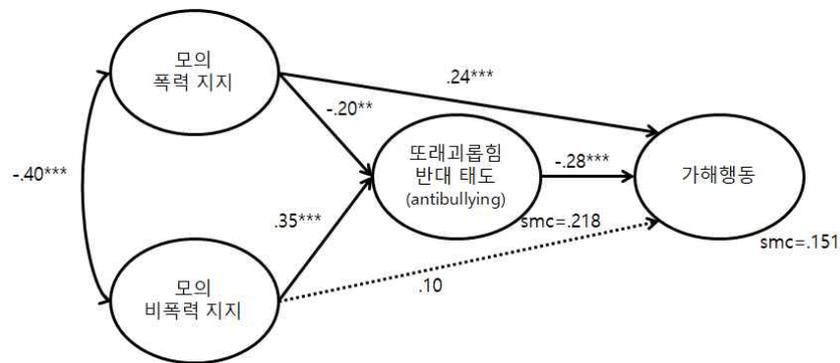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2의 매개효과(모의 폭력에 대한 태도)

** $p < .01$,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beta = -.28, p < .001$), 모의 폭력 지지와 가해행동 간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gamma = .24, p < .001$). 그러나 마찬가지로 모의 비폭력 지지와 가해행동 간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모형1(부)에서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와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각각 11.7%, 19.3%이었고, 연구모형2(모)에서 각 설명력은 21.8%, 15.1%로 나타났다. 즉,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지각된 모의 태도가 부의 태도보다 설명력이 높았으나, 가해행동에 대한 설명력에서는 연구모형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의 다변량 델타 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한 결과, 부/모의 폭력 지지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를 매개로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부분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부: $z = 2.28, p < .05$; 모: $z = 2.10, p < .05$). 또한 부/모의 비폭력 지지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를 매개로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완전매개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부: $z = -2.20, p < .05$; 모: $z = -2.48, p < .05$).

한편, 부/모의 폭력에 대한 지지와 가해행동

간 직접적인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각 $\beta=.32, p<.001, \beta=.24, p<.001$)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를 통한 간접효과와 비교해본 결과, 부의 폭력 지지의 간접효과($\beta=.05, p<.05$)와 모의 폭력 지지의 간접효과($\beta=.07, p<.05$) 모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구체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폭력에 대한 태도,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부모의 폭력 지지 수준이 낮은 것이 비폭력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 결과(예, Garthe et al., 2015; Kramer-Kuhn & Farrell, 2016; Murray et al., 2010)에 근거하여, 부모의 폭력 지지 뿐 아니라 비폭력에 대한 지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를 분리하여 별개의 모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 모형과 어머니 모형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갈등에 대해 폭력적인 해결방안을 선호한다고 더 많이 지각할수록, 초등학교 5, 6학년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폭력에 대한 지지를 많이 지각하는 것이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주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

하며(Farrell et al., 2011; Malek et al., 1998; Orpinas et al., 1999), 특히, 싸움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를 통제했을 때조차 자녀의 공격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는 Solomon 등(200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의 폭력 지지는 아동으로 하여금 이러한 부모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내재화하여 스스로 또래괴롭힘에 대해 수용적이 되도록 만듦으로써 간접적으로 가해행동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의 매개효과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동안 폭력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 경우 자녀 역시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지지되어 왔으며(예, Farrell et al., 2012; Solomon et al., 2008),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가 공격성 또는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예, Boulton et al., 1999; Burton et al., 2013; Huesmann & Guerra, 1997; Lim & Ang, 2009).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폭력 허용도가 자녀의 폭력 허용도를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예측했다는 국내 연구와 일맥상통하며(임정임, 김예성, 2010), 부모의 폭력에 대한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자녀에게 무엇이 허용되는 행동인지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형성하게 하고, 이것이 이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회인지 정보처리 모델을 정확히 뒷받침한다(Garthe et al., 2015).

마찬가지로, 부모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대화로 해결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학교 내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의 비폭력적 반응을 선호한다고 지각하는 것은 아동이 또래들 간의 괴롭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믿

음을 증진시킴으로써, 가해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제는 아버지 모델과 어머니 모델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폭력 지지와는 달리, 부모의 비폭력 지지를 지각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동의 가해행동을 줄이지는 못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를 지각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지 않았고 (Padilla-Walker & Carlo, 2007), 6학년 1학기에 부모의 비폭력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6학년 2학기의 공격적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Garthe et al., 2015)와 유사하다. 그러나 부모의 비폭력 지지가 이후 자녀의 공격성을 낮추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예, Farrell et al., 2011; Garthe et al., 2015 [7학년 자료]). 아직까지 부모의 비폭력 지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관적인 결과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비폭력적 해결 방안에 대한 부모의 선호나 기대를 인식한다고 해도, 단순히 공격성이 아니라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또래괴롭힘 가해행동(Olweus, 1993)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부모의 비폭력 지지를 알고 있음에도 위험한 학교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6학년 연구에서 다른 아이들이 욕을 하거나 싸움을 걸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하며 싸움은 때때로 불가피하다는 믿음을 가진 아동들이 가장 높은 비율(41%)로 나타났으나, 이들이 부모의 비폭력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는 싸움에 반대하는 아동들과 차이가 없었다(Farrell et al., 2012).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어머니 모델에서 변인들 간의 양상이 동일했지만, 어머니 모델의 경우 어머니의 비폭력 지지는 폭력 지지 보다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아동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이다. 즉, 어머니가 또래 갈등 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격려한다는 지각은 어머니의 폭력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보다 또래괴롭힘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아동의 태도를 증가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유대를 중시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Eagly, 2013), 어머니는 또래와의 갈등 시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것이고, 이러한 어머니의 반복적 메시지는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의 폭력 지지를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이 비폭력 지지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한편, 부/모의 폭력 지지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아동의 가해행동에 기여하는 것 보다는 자녀의 가해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버지의 폭력 지지가 자녀의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어머니의 폭력 지지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실생활에서 공격적 언행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한주리, 허경호, 2003), 이러한 행동적 모델링이 아동의 가해행동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공격적 대처방안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부모가 폭력적 해결방안을 지지한다고

믿게 만들며, 문제해결의 가능한 대안으로 공격적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Bandura, 1977).

본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5, 6학년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또래갈등 시 폭력적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아동의 지각을 줄이고, 비폭력적 방안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지지한다는 지각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Solomon 등(2008)은 고위험군 아동 개입 시, 부모가 스스로의 폭력적 행동 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인식할 수 있게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부모가 위험한 학교 및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공격적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 역시 변화의 대상이다(Kramer-Kuhn & Farrell, 2016). 또한 부모가 비폭력적 문제해결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자녀에게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는 자녀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고 자녀와 점차 덜 소통하기 때문이다(Juvonen & Galván, 2008). 실제로 부모의 비폭력 지지에 대한 지각은 6학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Farrell et al., 2011).

본 연구는 아동의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 부모라는 환경적 맥락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는데, 효과적이었던 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의 1/2 이상이 가족/양육요인을 다루고 있었다는 점(Le'Roy, Vera, Sikon, & Ikeda, 2000)과 동일하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또래괴롭힘 연구 및 예방 활동은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부모 요인을 다룬다고 해도 부모의 폭력적 행

동이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다룬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아직까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의 영향력 하에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이들의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폭력 관련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지각된 폭력 및 비폭력 지지는 일관되게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가해행동에 초점을 둔 처벌적 개입과 교육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면의 태도와 신념의 변화가 필수적이며(Ang, Ong, Lim, & Lim, 2010; Merrell, Gueldner, Ross, & Isava, 2008), 가해행동 그 자체보다는 공격성에 대한 신념이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 등 아동의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정적이다(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9; Werner & Nixon, 2005).

Garthe 등(2015)은 폭력적 행동이나 또래괴롭힘을 괜찮다고 허용하는 믿음을 형성할 경우 이와 비슷한 신념을 지닌 또래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크고, 새로이 또래관계와 위계구조를 형성하는 중학교 진학 시기에 이러한 믿음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선택과 사회화의 원리에 따라 이들의 공격적 행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진학 전 이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를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또래괴롭힘에 대

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러한 신념이나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구체적 기제를 살펴보고, 주요한 환경 요인인 부모 특성, 특히 부모가 폭력 및 비폭력적 갈등해결방안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동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부모는 또래 영향력이 확대되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자녀의 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사춘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아동기 후반에도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부모의 메시지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부모의 폭력 및 비폭력 지지를 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최근 연구결과(Garthe et al., 2015; Kramer-Kuhn & Farrell, 2016)와 동일하게 두 변인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폭력 및 비폭력 지지를 각각 측정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 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개입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가해아동의 신념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기초적이고 필요한 전략임을 보여주었다는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사회인지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거꾸로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부모의 폭력 및 비폭력 지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Garthe 등(2015)의 연구에서 7학년 1학기의 폭력적 행동은 2학기에 부모의 비폭력 지지가 낮다고 지각하는 것을, 1학기의 비폭력적 행동은 2학기에 부모의 비폭력 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예측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종단연구를 통해 부모의 폭력 및 비폭력에 대한 지지와 아동의 가해 행동 간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를 지녔음에도 가해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하므로(Boulton et al., 2009; Gendron, Williams, & Guerra, 2011), 이에 기여하는 다른 상황적 변인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almivalli & Voeten, 2004). 마지막으로, 또래괴롭힘 참여율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급증하고 있다는 최근 현황 분석(오인수, 이승연, 김화영, 황혜영, 임영은, 2017)을 토대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태도와 행동, 부모의 역할 등 가해행동과 관련된 요인들 간의 구체적 기제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6).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도자료. 2016년 12월 5일자.
- 오인수, 이승연, 김화영, 황혜영, 임영은 (2017).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의 특징 탐색.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
- 임정임, 김예성 (2010).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인간발달연구*, 17(1), 243-262.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전혜리, 조영일 (2015). 학교폭력 가해 경험과 음주 및 흡연 경험의 종단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 111-129.

- 조영일 (201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67-87.
- 최경숙, 송하나 (2010). 발달 심리학: 전 생애: 아동, 청소년, 성인. 경기: 교문사.
- 한주리, 허경호 (2003). 부모-자녀 간 논쟁성향 및 언어적 공격성향의 관계. *한국소통학회: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 41-71.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Ang, R. P., Ong, E. Y., Lim, J. C., & Lim, E. W. (2010). From narcissistic exploitativeness to bullying behavior: The mediating role of approval of aggression beliefs. *Social Development*, 19(4), 721-735.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lakemore, J. E. O., Berenbaum, S. A., & Liben, L. S. (Ed.). (2009). *Gender development*, New York: Psychology Press.
- Boulton, M. J., Bucci, E., & Hawker, D. D. (1999). Swedish and English secondary school pupils' attitudes towards, and conceptions of bullying: Concurrent links with bully/victim involvemen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0(4), 277-284.
- Boulton, M. J., Duke, E., Holman, G., Laxton, E., Nicholas, B., Spells, R., & Woodmansey, H. (2009). Associations between being bullied, perceptions of safety in classroom and playground,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 among primary school pupils. *Educational Studies*, 35(3), 255-267.
- Burton, K. A., Florell, D., & Wygant, D. B. (2013). The role of peer attachment and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on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50(2), 103-115.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9). Initial impact of the Fast Track prevention trial for conduct problems: II. Classroom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5), 648.
- Copeland-Linder, N., Jones, V. C., Haynie, D. L., Simons-Morton, B. G., Wright, J. L., & Cheng, T. L.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retaliatory attitude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who have been assaulted.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2(7), 760-770.
- Cook, C. R., Williams, K. R., Guerra, N. G., Kim, T. E., & Sadek, S. (2010). Predictor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5(2), 65-83.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
- Dodge, K. A. (1993).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1), 559-584.
- Eagly, A. H. (2013).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NJ: Psychology Press.
- Eslea, M., & Smith, P. K. (2000). Pupil and

- parent attitudes towards bullying in primary school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5(2), 207-219.
- Farrington, D. P., & Trofi, M. M. (2011). Bullying as a predictor of offending, violence and later life outcome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1(2), 90-98.
- Farrell, A. D., Bettencourt, A., Mays, S., Kramer, A., Sullivan, T., & Klierer, W. (2012). Patterns of adolescents' beliefs about fighting and their relation to behavior and risk factors for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5), 787-802.
- Farrell, A. D., Henry, D. B., Mays, S. A., & Schoeny, M. E. (2011). Parents as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chool norms and peer influences on agg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82(1), 146-161.
- Fox, C. L., Elder, T., Gater, J., & Johnson, E.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s' beliefs in a just world and their attitudes to victims of bully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2), 183-198.
- Huesmann, L. R., & Guerra, N. G. (1997).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408.
- Garthe, R. C., Sullivan, T. N., & Larsen, R. A. (2015).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l support for violent and nonviolent responses and early adolescent aggressive and effective nonviolent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45, 183-195.
- Gendron, B. P., Williams, K. R., & Guerra, N. G. (2011). An analysis of bullying among students within schools: Estima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normative beliefs, self-esteem, and school climate. *Journal of School Violence*, 10(2), 150-164.
- Juvonen, J., & Galvan, A. (2008). Peer influence in involuntary social groups: Lessons from research on bullying. In M. Prinstein & K. Dodge (Eds.), *Peer influence processes among youth* (pp. 225-244). New York: Guilford Press.
- Kim, M. J., Catalano, R. F., Haggerty, K. P., & Abbott, R. D. (2011). Bullying at elementary school and problem behaviour in young adulthood: A study of bullying, violence and substance use from age 11 to age 21.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1(2), 136-144.
- Kline, P. (2000).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2nd ed.). London: Routledge.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lomek, A. B., Marrocco, F., Kleinman, M., Schonfeld, I. S., & Gould, M. S. (2008).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2), 166-180.
- Klomek, A. B., Sourander, A., Niemelä, S., Kumpulainen, K., Piha, J., Tamminen, T., Almqvist, F., & Gould, M. S. (2009). Childhood bullying behaviors as a risk for suicide attempts and completed suicides: a population-based birth cohort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8(3), 254-261.
- Kramer-Kuhn, A. M., & Farrell, A. D. (2016).

- The promotive and protective effects of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peer and community risks for agg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4), 793-811.
- Le'Roy, E. R., Vera, E. M., Simon, T. R., & Ikeda, R. M. (2000). The role of families and care givers a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preventing youth viol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3(1), 61-77.
- Lim, S. H., & Ang, R. P. (2009). Relationships between boy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and their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ve behaviors. *Adolescence*, 44(175), 635.
- Malek, M. K., Chang, B. H., & Davis, T. C. (1998). Fighting and weapon-carrying among seventh-grade students in Massachusetts and Louisiana.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3(2), 94-102.
- Merrell, K. W., Gueldner, B. A., Ross, S. W., & Isava, D. M. (2008). How effective are school bullying intervention programs? A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research.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3(1), 26-42.
- Murray, K. W., Haynie, D. L., Howard, D. E., Cheng, T. L., & Simons-Morton, B. (2010). Perceptions of parenting practices as predictors of aggression in a low-income, urban, predominately African American middle school sample. *Journal of School Violence*, 9(2), 174-193.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logical theory*. New York, NY: MacGraw-Hill.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 Orpinas, P., Murray, N., & Kelder, S. (1999). Parental influences on students' aggressive behaviors and weapon carrying. *Health Education & Behavior*, 26(6), 774-787.
- Padilla-Walker, L. M., & Carlo, G. (2007). Personal values as a mediator between parent and peer expectations and adolescent behavi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538-541.
- Pouwels, J. L., Lansu, T. A., & Cillessen, A. H. (2017). Adolescents' explicit and implicit evaluations of hypothetical and actual peers with different bullying participant rol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59, 219-241.
- Rigby, K. (1997). Attitudes and beliefs about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The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8(2), 202-220.
- Rodkin, P. C., Espelage, D. L., & Hanish, L. D. (2015). A relation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bullying: Developmental antecedents and outcomes. *American Psychologist*, 70(4), 311.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cheithauer, H., Hayer, T., Petermann, F., & Jugert, G. (2006). Physical, verbal, and

- relational forms of bullying among German students: Age trends, gender differences, and correlates. *Aggressive Behavior*, 32(3), 261-275.
- Sieving, R. E., McNeely, C. S., & Blum, R. W. (2000). Maternal expectations, mother-child connectedness, and adolescent sexual debut.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4(8), 809-816.
- Solomon, B. S., Bradshaw, C. P., Wright, J., & Cheng, T. L. (2008). Youth and parental attitudes toward fight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4), 544-560.
- Thornberg, R., & Jungert, T. (2014). School bullying and the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Aggressive Behavior*, 40(2), 99-108.
- Thurber, S., & Osborn, R. A. (1993). Comparisons of parent and adolescent perspectives on devianc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1), 25-32.
- Vernberg, E. M., Jacobs, A. K., & Hershberger, S. L. (1999). Peer victimization and attitudes about violence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8(3), 386-395.
- Wang, J., Iannotti, R. J., & Nansel, T. R. (2009). School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4), 368-375.
- Wang, C., Swearer, S. M., Lembeck, P., Collins, A., & Berry, B. (2015). Teachers matter: an examination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ttitudes toward bullying, and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31(3), 219-238.
- Werner, N. E., & Nixon, C. L. (2005). Normative beliefs and relational aggression: An investigation of the cognitive bases of adolescent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3), 229-243.
- Zimmer-Gembeck, M. J., & Collins, W. A. (2003). Autonomy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In G. R. Adams & M. D. Berzonsky (Eds.),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pp. 175-204). Malden, MA: Blackwell.
- Ziv, Y., Leibovich, I., & Shechtman, Z. (2013).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 to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s. *Aggressive Behavior*, 39(6), 482-492.

1차원고접수 : 2017. 09. 18.

수정원고접수 : 2017. 11. 29.

최종게재결정 : 2017. 12. 05.

The Relations among Parental Attitudes toward Fighting/Non-fighting, Anti-bullying Attitudes, and Bullying Behavior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ung-yeon Lee Eun-ji Choi Bo-ram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anti-bullying attitud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toward fighting and non-fighting, and bullying behaviors. For this research, the self-report data of 417 Korean children in 5th and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was analyzed.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parental support for fighting directly predicted anti-bullying attitudes and bullying behaviors. Although parental support for non-fighting predicted anti-bullying attitudes, it did not directly predict bullying behaviors. Anti-bullying attitude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toward fighting and bullying behaviors. Meanwhile, these attitude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toward non-fighting and bullying behavior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along with the suggestions for bullying prevention/intervention strategies in elementary school.

Key words : *bullying, bullying behaviors, parental attitudes toward fighting and non-fighting, anti-bullying attitudes*